금주의 법구-〈잡보장경〉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지 않고
남을 모함하지 않으며
항상 중도에 있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3월 2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141호 2017년 3월 29일 수요일

청소년 인성교육, 불교명상이 '대세'

조계종 청소년 마음등불 만족 '으뜸', 참가자 '급증'

청소년 자살률 OECD 1위, 학업스트레스와 학교폭력 등에 시달리는 우리 청소년들의 현실이다. 이런 청소년들의 심성 치유에 조계종이 시행하는 '청소년 마음등불' 프로그램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선 지도자들은 향후 인성교육을 주도하기 위해 종립학교를 중심으로 한 공교육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3월 22일 '2016 청소년 마음등불'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에서 설문 응답자의 93%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조계종 청소년 마음등불 프로그램은 2015년 인성교육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인성교육진흥법' 시행에 맞춰 진행되고 있는 불교계 대표 청소년 인성교육 사업이다. 이번 만족도 설문에는 프로그램 참가자 737명 중 651명이 응답을 했으며 이 중 53%인 345명이 '매우 만족'을 40%인 261명이 '만족' 의사를 표했다.

조계종 청소년 마음등불 프로그램은 가톨릭 민족화해위원회의 'DMZ평화의길'이나 YMCA의 '생명평화의 바람꽃', 같은 불교계인 파라미타 청소년협회의 '참나를 찾아가는 여행' 등 종교계의 18개 인성프로그램과 차이점이 있다.

바로 '조계종 인증' 시스템이다. 청소년 마음등불 프로그램은 '명상' '심리상담' 등 마음치유를 주제로 조계종 포교원이 직접 개발한 프로그램과 사찰, 불교단체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함께 심사, 인증해 운영한다. 2015년 9월 '인성교육 개발, 인증위원회'를 출범시킨 조계종 포교원은 금강선원과 한마음과학원, 한국명상상담학회, 행불선원 인성교육 프로그램 등 총 12개 프로그램을 인증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는 사찰과 명상센터 17곳에서 11개 프로그램이 36차례 펼쳐져 참가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소금만다라 오감체험, 호흡명상, 한나무인성교육, 10분 집중명상 등 프로그램은 다양했다.

이 같은 장점으로 인해 '청소년 마음등불' 프로그램은 2016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에 의뢰를 받아 서울대 종교문제연구소가 실시한 '청소년 인성교육 18개 단체 대상 평가'에서 최우수 사례로 꼽히기도 했다.

당시 평가를 진행한 성해영 서울대 교수는 "다양한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이 특징으로 교육현장서 계층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며 "프로그램 진행 및 인증관리 뿐만 아니라 명상기법을 종교적 색채 없이 적용시켰고, 이를 수강한 청소년들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임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안팎의 높은 평가 속에 참가자는 늘고 있는 상황이다. 2015년 청소년 마음등불 프로그램에는 중 · 고등학생 556명이, 2016년에는 737명이 참여했다. '청소년 마음등불'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도 2015년 5900만원에서 올해 1억 20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달기 포교원 주임은 "2017년 현재 17개 사찰 및 명상센터가 프로그램 진행을 신청한 상태로 총 40여회 진행시 올해 참가자는 820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계종 인증' 시스템이 장점
매년 참가자 · 정부 지원 증가
교육공동체 구성 필요성 나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 안주하지 말고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입 초기 시기를 벗어나면 인성교육계에도 곧 주도권 경쟁이 펼쳐질 것이란 진단이다. 가톨릭계를 비롯해 다른 종교계도 종립학교를 중심으로 각급 학교에 인성교육 특강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인성교육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장 인경 스님은 "인성교육 지도자들의 양성이 각 단체마다 다르다. 자칫 사교육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며 "공교육과 함께 교육공동체로 사업이 진행돼야 하며 불교계 내 인성교육을 담당 전문인력 양성과 네트워크 구축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원철 스님은 "이제는 보급도 중요한 시점이기에 종립학교를 중심으로 일선학교에 마음등불 프로그램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연꽃지화 더하니 축제 분위기 '후끈'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연꽃 지화를 부처님 전에 올린다. 몇날 며칠 꼬박 만들었지만 부처님을 생각하며 만든 탓에 힘들단 생각보단 가슴 속에 환희심이 가득 차오른다. 3월 23~26일 2017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린 가운데, 첫날인 23일 박람회장 한편서 진행된 '불교지화 런웨이'로 축제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다. 사진은 불교지화 명인 정명 스님이 가르치는 조계사 · 봉은사 수강생들이 연꽃지화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글 · 사진=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수좌회 "직선제는 청정승가 구현 방편"

3월 23일 기자회견… 현행 선거제 문제점 비판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가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종단 안팎에서 여론이 높아지는 직선제 도입을 촉구했다.

전국선원수좌회(대표 의정)는 3월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로선림위원장 적명 스님을 비롯한 1200여 수좌회 대중의 의견을 모아 종단지도부가 직선제 입법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수좌회는 성명을 통해 "한국불교와 조계종단에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는 오직 청정승가의 확립과 청정한 지도자 선출"이라며 "직선제는 이를 위한 방편이다. 종도들의 전폭적인 지지에 의해 선출된 지도자라야 산적한 적폐를 일소하고 청정승가를 구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좌회는 이어 △종단 역량 결집해 청정승가 구현 △자승 총무원장 재임공약(직선제) 이행 △중앙종회 종도 여망 수용해 직선제 관철 △재정 투명화로 수계부터 다비까지 복지 시행 △총무원장 피선거권 제약 개정 등을 촉구했다.

이후 기자들과 1시간가량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장로선림위원 12인의 동의를

적명 스님 등 원로급 대거 동참
1200여 수좌 의견 모아 발표
"간선제 폐단 극심, 극복 의지 있나"

묻는 질문에 수좌회 대표 의정 스님은 "전부 직접 찾아뵙고 의사를 확인했다. 2분은 종단 혼란을 염려해 사태를 지켜보고 동참하겠다고 하셨다"고 설명했다.

지난 총무원장선거 당시 자승 스님의 재임을 반대하며 천막농성을 펼쳤지만 얼마 못 가 해산한 것에 대해 수좌회 의장 월암 스님은 "당시 어설프게 물러났다고 비난을 받았다. 수좌회 전체 의견이 통일되지 못해 중도포기 했다. 이후로 반성을 많이 했다"면서 "이번엔 장로스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더불어 수좌의견을 모은 것이다. 반드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타나냈다. 출가자 · 불자 감소 문제에서 수좌회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에는 "책임을 통감하기 때문에 산중을 벗어나 이 자리까지 온 것"이라고 답했다.

스님은 또 피선거권 개정 요청에 대해 "현행 총무원장 후보자격 제한을 문제삼는 것이다. 일반사회로 따지면 도지사나 장관만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으려는 것"이라며 "수좌들이 총무원장이 되려 한다는 정치적 야욕이 있는 건 전혀 아니다. 직선제 시행되면 당연히 개정돼야할 문제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끝으로 직선제로 인해 예상되는 폐단을 감안하고 나선 것이냐는 질문에는 "폐단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 폐단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고, 종교 양심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며 "간선제라도 공명정대하게 관리됐다면 문제가 있었겠나. 그만큼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종단집행부를 비판했다.

의정 스님은 향후 계획에 대해 "직선제를 향한 비구니스님들의 열망이 더 크다. 4월 비구니선원장 회의가 끝난 뒤 접촉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종단지도부 노력 여하에 따라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자회견에는 대표 의정 스님을 비롯한 30여 수좌회 스님들이 참석했으며, 성명에는 장로선림위원장 적명 스님과 부위원장 무여 스님을 비롯해 고우 · 대원 · 혜국 · 현기 · 성우 · 지선 · 원각 · 인각 · 지환 · 정찬 스님 등 원로급 스님들이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Fact Check Q&A - 조계종 총무원장 직선제, 간선 병폐 대안인가 A5면

청정승가 구현을 위하여 자승 총무원장은 직선제 공약을 이행하라!!!

모름지기 수행자가 도에 게을러지면 삶이 향기롭지 못하고, 출가사문이 명리를 탐하게 되면 수행자로서의 생명이 단절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조계의 후학들이 수행과 교화에 철저하지 못하여 청정승풍과 요익중생의 본분을 망각하고, 명리승이나 호구승으로 전락해가고 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방선원의 납자들은 청정승풍이 무너진 종단의 현실에 수행자로서 참회를 올리고, 파사현정의 심정으로 청정승가 구현의 한 방편으로 총무원장 직선제를 주장하는 바이다. 율장에 의거하면, 현전승가에서 백이갈마를 통해 소임자를 선출하듯이, 종단의 최고 소임자인 총무원장을 선출함에 있어서 전체 종도의 갈마를 통한 직선선출이 마땅할 것이다.

기본과 상식과 공의가 통하는 지도자, 율 · 교 · 선에 여법한 수행자가 종단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이에 전국선원수좌회는 청정승가와 종도화합의 역량을 결집시키고자 철저한 검증과 공개토론을 통해 인격과 수행력을 갖춘 종사가 후보가 되어야 하며, 공영제에 의한 직선제를 시행하여 종단의 수장이 선출되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 수좌들은 현 종단 총무원장과 총무원집행부와 중앙종회를 향해 다음과 같은 정당한 요구를 하고자 한다.

다 음

하나. 종단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청정승가를 구현하여야 한다.
하나. 자승 총무원장은 직선제를 시행함으로써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즉각 재임 공약을 이행하라.
하나. 중앙종회는 100인 대중공사의 61%, 종회 주관 여론조사 81%라는 종도들의 여망을 즉각 수용하여 직선특위를 가동하여 직선제를 관철하라.
하나. 재정의 투명화로 수계에서 다비까지의 전면 복지를 시행하라.
하나. 총무원장 피선거권의 제약을 규정한 선거법을 즉각 개정하라.

대한불교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

장로선림 위 원 장 : 적명(봉암사 수좌)
부위원장 : 무여(축서사 선원장)

장로선림위원 : 고우(원로위원), 대원(원로위원), 혜국(석종사 선원장), 현기(상무주암 선덕), 성우(용화사 선덕), 지선(백양사 방장), 원각(해인사 방장), 인각(범어사 수좌), 지환(동화사 유나), 정찬(대흥사 유나) - 무순

선 림 위 원 : 영진(백담사 유나), 원타(봉암사 전주지), 일수(백양사 유나), 함현(봉암사 전주지), 원광(봉암사 주지), 원인(수도암 선원장), 영일(통도사 유나), 무공(백양사 선원장), 수원(봉암사 한주), 문석(신흥사 선원장), 선법(전 수좌회 부의장), 동진(서운암 선원장), 대전(기본선원장), 정진(직지사 선원장), 효담(해인사 선원장), 노옹(칠불사 선원장), 황노(보광사 선원장), 성묵(남국선원 선원장), 원유(전 수좌회 부의장), 원근(전 봉암사 도감), 덕원(심적사 선감), 수웅, 견명, 보설, 성모, 성륜, 청암, 공마, 덕문, 정견, 능혜, 성하 외 한주 40명 - 무순

수좌회 공동대표 : 현묵(송광사 유나), 의정(상원사 선원장)
의 장 : 월암(한산사 선원장)
부 의 장 : 능광(동화사 선원장), 정과(봉암사 한주)
분과위원장 : 원상(총무), 강설(복지), 범허(교육), 효각(섭외)
사무처장 : 인선 외

수좌회 대중 1,200여명 일동